

AI 전진기지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닷 올렸다

광주시·AI산업융합사업단·NHN 투자협약·착수식 첨단3지구에 세계적 수준 컴퓨팅 성능 갖춘 센터 구축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이 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4일 착수식을 갖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와 '인공지능 강국 대한민국'이란 담대한 여정의 닷을 올렸다.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꿈의 시작, 광주'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을 했다.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정우진 NHN(주) 대표,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주요인사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영상축사와 주제영상 상영, 인공지능 광주시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발표,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소개, 투자협약 등이 진행됐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인공지능 광주시대' 추진상

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조성해 광주가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번에 구축되는 AI데이터센터에 모아지는 데이터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돼 각종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클라우드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면서 "광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를 인공지능과 융복합시켜 광주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면서 정부에 데이터 기본법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법 정비와 규제완화, 그리고 집중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이날 행사에서 NHN(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광주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NHN은 2100억원을 추가 투자해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광주인공지능 R&D센터 구축 및 전문인력 채용 ▲NHN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NHN은 오는 4월부터 2023년 AI데이터센터 개동 전까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활용해 기업들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우진 NHN(주) 대표는 "첨단3지구에 국내 최대 규모인 88.5페타플롭스의 연산능력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완료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들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지원해나가는 한편, 지역IT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국가 인공지능 융복합단지인 인공지능 데이터 템, 국내 최고 수준의 컴퓨팅 자원, 창업·연구·인재양성 인프라를 한 곳에 집약한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GIST 인공지능대학원 현판식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4일 오후 광산구 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대학원 교육연구지원동 TED홀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기선 GIST 총장 등 내빈들과 인공지능대학원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광주 방산 벤처기업, 군수 매출 610억

방위산업 지역경제 새 성장 동력

광주 방위산업 분야 중소벤처 기업들이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주 국방벤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방산 벤처기업들은 군수 매출 610억원, 대기업으로부터 방산 장비 지원 40억 상당, 국방 분야 정부지원금 49억원 등을 기록했다.

(주)피티지, 공간정보, 이상테크 등 기업은 국방 벤처기업 수행과제에도 선정돼 국비 지원을 통한 민군 겸용 기술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유리로는 K21/K2 레이저 경보장치용 수신기모듈 개발, ㈜무진기연은 공군 군수사 피스톤 조립체 등 9개 품목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사업에 채택돼 군 납품을 준비 중이다.

해군 함포용 포신검사 로봇 2종을 해군에 납품하고 있는 ㈜준성이엔알과 한화로부터 40억원 상당의 광섬유자이로 개발 장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100억원 규모의 매출 실적을 달성한 ㈜옵토닉스도 국방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방위산업기술 진흥연구소와 함께 2013년 설립한 광주 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진 지원이 치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펜고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국방 기술에는 로봇, 바이오 등 다양한 선진 기술이 포함됐다"며 "방위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윤진상 씨

광주시는 4일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 윤진상(65)씨를 임명했다.

윤 신임 센터장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과 봉사자의 심리 지원 활동을 했다. 현재 해피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스마일센터장과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10월 정부 정신보건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광주트라우마센터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우주 씨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명지원 전 광주트라우마센터 상임팀장이 최근 1년간 센터장을 지냈다. 임기는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개별공시지가' 일제 조사 착수

드론·위성영상 등 첨단장비 활용 국세·지방세·부담금 부과 기준

전남도는 최근 표준지공시지가가 결정됨에 따라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착수했다.

전남도는 도내 전체토지의 88%인 515만 필지에 대해 개별지가의 객관성과 합리적 산정에 중점을 두고 시군별 일제 조사를 벌이며, 일체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드론과 위성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지역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참고해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일치시킬 방침이다.

또 행정구역간 지가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인접 시군 담당공무원간 토지가격을 균형에 맞도록 해 지가산정의 합리성을 더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하며 개별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등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월 1일기준 결정지가는 오는 5월 31일 공시되며, 이후 이의신청 등에 따른 지가검증을 거쳐 7월 28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각 토지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반영해 결정될 것이다"며 "도민들은 합리적인 지가 산정을 위해 시기에 맞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기준 전남지역 자산 규모는 128조8600억원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여수 학동에 소재한 상가로 1㎡당 424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완도군 청산면의 임야로 1㎡당 163원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수급 안정' 불법어업 단속

지도선 18척·공무원 50명 투입 무면허 전복 양식시설 집중

전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지선 확립과 수급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4일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의 증가로 양식 수산물이 과잉 생산돼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면허 양식시설에 대한 대대적 지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에는 전남도와 16개 시·군의 어업지도선 18척이 참여하며, 단속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면허 전복 양식시설로,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과 조업구역 위반, 불법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에 대해 집

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전복 양식어장은 신규어장개발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식시설이 증가해 수급 안정을 위한 불법시설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법적 이행을 위한 단속도 불구하고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에 대한 선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도는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선제 엄중 처벌을 통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